【서평】

김재권 지음 · 하종호 옮김

『물리계 안에서의 마음』

철학과현실사(1999)

조 승 옥(육사)

이 책은 저자가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1996년 3월 캘리포니아 대학교(버클리)의 '타운센트 강연회'에서 행한 네 편의 강연 원고들로 이루어졌다. 강연회에 대비하여 조금 느슨한 구어체로 원고를 쓴 것이 이 저서의 특징이자 장점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심리철학을 전공하거나 전공하려는 철학도들이나 심리철학을 전공하지 않는 철학도들, 그리고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타분과 학자들도 접근하도록 어려운 이론들과 쟁점들을 가급적 평이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자인 김재권 교수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부각시키고, 이를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는 것도 이 저서의 특징으로 보인다.

현대 분석철학계에 심신문제에 관한 논의의 단초를 열어준 것은 심신동일론이라 할 수 있다. 물=H2O이고, 유전자=DNA분자들이라는 사실을 과학이 보여준 것처럼 신경생리학과 같은 과학연구를 통해서 고통=C신경 섬유 자극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는 생각은 확실히 과학에 대해 낙관적이었던 시대에 부합하는 발상이었다. 그러나 심신동일론은 이 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물리주의 때문이 아니라 환원주의로 인해서 도전을 받아 단명에 그쳤다. 그렇지만 이후의 심신이론이 이원론으로 후퇴하지 않고 물리주의 노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한 것은 동일론의 공적이다.

동일론 이후 심신문제는 크게 심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에 '수반한다'는 생각과, 심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생각, 그리고 심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창발한다'는 생각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가운데 심신 수반은 데이빗슨에 의해 소개되었다. 그는 무법칙적 일원론을 통해 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간에 체계적인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심신이론이든지 심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으며, 왜 그렇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데이빗슨은 곧바로 자신의 입장이 심물 법칙은 부정하더라도 심적 속성들이 물리적 속성들에 의존하거나 수반하다는 입장과 일치한다고 언명했다.

이는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들렸다. 수반론은 심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물리주의 편에 섰을 뿐만 아니라, 심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비환원주의자들의 관점과 일치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 철학자들은 유망한 물리주의적 형이상학을 심신 수반에서 찾았다. 수반 개념은 일부 기능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다수실현 논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수반론은 대부분의 기능주의자들이 물리주의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되, 물리적인 환원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그 작업을 하게 되어 심적인 것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해 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수반론은, '심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에 의존한다'거나 '물리적인 것에 차이가 없으면 심적인 것에도 차이가 없다'는 것만을 단지 서술할 뿐 왜 그러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수반론은 설명적 이론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물리적 실현주의나 창발론은 물론 유형동일론과 부수현상론 등 다양하고 서로 상충하기까지 하는 심신이론들이 모두 심신 수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발한 심신이론도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심신 수반의 유용성이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된다. 심신 수반은 적어도 '최소 물리주의'를 정의하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심신 수반은 "물리주의자로 행세하고 싶은 사람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최소한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현대 심리철학자들이 물리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물리주의자들을 가장 난감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질과 물질 덩어리로 이루어진 물리적 세계에 마음이 인과력을 발휘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물음이다. 여기서 한 동안 수반론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왜냐하면 심신 수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물리적 인과 폐쇄의 원리를 명백히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상호작용론은 이 원리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수반론자들은 이원론자들에 대하여, “심신 수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심적 인과는 불가사의한 것이 된다”는 주장을 당당히 펼 수 있다.

그러나 심신 수반이 성립한다고 해서 심신 인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심신 수반 자체가 심적 인과 문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 논증은 다음과 같다.

1. 심적 사건 M이 다른 심적 사건 M′의 원인이라고 가정하자.

2. (심신 수반에 의하여) M′에는 물리적 수반기초 P′가 있다.

3. M′이 나타나는 이유는 (1) 가정상 M은 M′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며, (2) M′의 물리적 수반기초인 P′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4. (심신 수반에 의하여) P′이 발생하는 한(M의 발생과 관계없이) M′이 발생한다.

5. 이것은 M이 M′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을 위태롭게 만든다.

6. M이 M′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과 M′가 P′를 수반기초로 가진다는 사실을 조화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은, M은 P′의 원인이 됨으로써 M′의 원인이 된다는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7. M 자체는 물리적 수반기초 P를 가진다.

8. M과 P가 모두 P′의 원인이 될 수 없다.

9. (물리계의 인과적 폐쇄 원리에 의하여) M은 P′의 원리가 될 수 없다.

10. M으로부터 M′에 이르는 인과 관계와 M으로부터 P′에 이르는 인과 관계는 P로부터 P′에 이르는 진짜 인과 과정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으로서, 겉으로 보기에만 인과 관계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따라서 1에서 가정했던 심적 사건 M으로부터 다른 심적 사건 M′으로의 인과 관계는 결과적으로 사이비('그림자') 인과 관계에 불과하게 된다. 이는 분명히 말해서 심적 속성들의 인과력을 위태롭게 한다. 따라서 "심신 수반이 성립하더라도 심적 인과는 여전히 불가사의해진다"는 결론이 성립한다. 이것은 이원론자들이 물리주의자들에 가하는 반격이다.

심신 수반이 성립하더라도 심적 인과력은 위협을 받게 된다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철학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그 하나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아예 그런 문제를 없애거나 철학적 의의를 경시하는 반응이다. 지질학적 속성들이나 화학적 속성들이 물리적 기초 속성들에 수반한다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만일 심신 수반이 심적 인과를 위태롭게 한다면 이들 지질학적 속성들과 화학적 속성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질학적 속성들이나 화학적 속성들의 인과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심적 속성들의 인과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심적 인과의 문제를 모든 다른 특수과학의 속성들의 인과 문제로 일반화시킴으로써, 이 세계에서 인과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은 기초적인 미립자들과 그것들의 미시물리적 속성들뿐이고 탁자나 의자, 두뇌와 같은 거시적인 대상들과 그것들의 속성들은 인과력을 박탈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화의 논변' 가운데 아직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것은, 만일 수반이 심적 속성들의 인과력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왜 그것은 지질학적 속성들이나 화학적 속성들과 같은 특수과학들의 속성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심적 인과와 관련된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형이상학적인 대가를 크게 치르지 않고서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속성 이원론을 포기하고 환원주의나 제거주의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아예 부수현상론으로 만족하던가, 심지어 실체 이원론으로 회귀할 것을 심각히 고려해보는 것들이 그러한 해결책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공짜"가 아니라면 "싸

구려" 해결책에 불과한 것이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싸구려 수선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심적 인과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심적 속성을 기능화 시킴으로써 심적 속성의 인과력을 확보하는 길이 있다. 심적 속성을 기능화 시킨다는 것은 심적 속성을 그것의 전형적인 원인들과 전형적인 결과들에 의해서 정의되는 2차 속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2차 속성으로서의 기능적 속성은 새로운 인과력을 세계에 도입하지 않는다. 2차 속성들의 인과력은 그것들의 1차 실현자들이 지니는 인과력을 넘어서지 않는다. '인과적 상속 원리'에 따르면, 2차 속성 사례의 인과력은 그 경우에 예화되는 1차 실현자가 지니는 인과력과 동일하다.

2차 속성 사례와 1차 실현자의 인과력이 동일하다는 것은, 2차 속성 사례 M과 1차 실현자 사례 P간에 M↔P의 상관관계가 왜 성립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M=P의 근거가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다. 즉, 환원은 본질적으로 기능화이고, 심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된다면 심적인 것의 인과력에 관해서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이글 식의 교량법칙이 환원을 위한 필요조건도 아니고 충분조건도 아니라면, 기능주의적 환원은 새로운 환원 모델로 적절하다.

우리가 심적 속성들의 인과력을 설명하려고 할 때 어렵게 만드는 것은 기능화에 저항하는 심적 속성들이다. 물리적 속성들에 수반하면서도 기능화되지 않는 심적 속성들(감각질이 한 예다)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심적 인과의 문제에 다시 직면하게 된다. 감각질과 같은 의식경험의 현상적 속성들이 기능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들의 인과력을 물리적 틀 안에서 설명할 방도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두 갈래의 기로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물리주의에 머무는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이원론을 위해서 물리주의를 버리기로 결정하는 길을 택하든지 하여야 한다. 물리주의에 머물기로 결정한다면, 또 다시 수반적이지만 환원 불가능한 심적 속성들(감각질)은 존속시키면서 그것들의 인과적 무기력을 받아들이는(부산형상론) 길과,

제거주의를 받아들여 이러한 환원 불가능한 속성들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거주의나 부산현상론은 둘 다 결국에 가서 심적 속성의 실재성을 부인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렇다면 환원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가? 그렇게 되면 심적인 것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물리계로 흡수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결국 물리주의로부터 갈라져 나온 모든 길들이 심적인 것들의 비실재성이라는 하나의 종점으로 모인다. 이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물리계의 일부로서 심적인 것을 남겨두는 것이 부수현상론이나 노골적인 제거주의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결국 환원적 물리주의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

심적인 것을 구제할 좀더 현실적인 기회를 철저한 이원론이 제공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원론은 미지의 영역이고, 어떠한 위험성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이 이 책의 결론이다.

이 책의 결론은 김재권 교수가 걸어온 철학적 여정의 종착점이 아니고 중간역과 종착역 사이의 그러나 종착역에 가까운 어디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 여정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한 발짝 한 발짝 종착점을 향해 접근해가고 있다는 점이다.